

#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의 構造的인 特徵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eremonial Costumes in New Aboriginal Religious Groups in Korea

김현경 · 임상임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Hyun-Gyung Kim · Sang-Im Im  
Dept.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45 sects of seven new aboriginal religious groups in Korea including Jeungsan sect, Tangun sect, Soowoon sect, Won Buddhism, Bongnam sect, Gahksedo sect, Shamanism sect that had given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modern Korean society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through the field study and the review of docum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lucidate how their religious ideas were reflected in their ceremonial costumes and what characteristics these costumes ha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new religious groups in Korea modified or mixed the designs or the names of existing outfits to convey their ideas or beliefs through their costumes.
2. The costumes of new religious groups had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Korean tradition and ancestor worship.
3. All the ceremonial costumes symbolized the creeds and ideas of each religion in their names, designs, and colors. The names of the costumes such as Way-Robe, Law-Robe, and Ceremony-Robe, and of the headpieces such as Sky-Crown, Lotus-Crown, Ceremony-Crown, and Sevenfold-Crown, for instance, were related with Buddhism, Taoism, and Confucianism. The most common design of costume was consisted of traditional hanbok and some type of headpiece and robe for men, and hanbok modified to Western-style for women. Most sects adopted hanbok as their ceremonial costume, but they tend to simplify its design. The color scheme of the costumes reflected the influence of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idea but the colors varied depending on seasons and occasions to suit their creeds and philosophy.
4. These religious costumes were worn at various ceremonies, ritual, and various anniversary services for the master and other dignitaries of the sect to render greater piety to those gatherings, to distinguish the sect from other religious group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eremony, and to heighten the devout feelings of the participants. Thus, the structure (the symbol, names, and types of the outfit, and their color scheme) and religious background of the costumes of the new aboriginal religious groups in Korea turned out to have inherited and mixed various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outfits and those of existing religions to symbolize their religious ideas.

**Key words** : new aboriginal religion, ceremonial costumes hanbok

### I. 緒 論

최근 사이버 종교 집단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단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세인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다. 과연 이들 단체들이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종교 단체라는 미명아래 허위의 탈을 쓴 사이버 집단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기에 혼란스럽다. 그러나 기성 종교와 구분되는 신

종교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몇몇 종교 단체들은 활발한 종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신종교 단체들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각 종교 집단에서 착용하고 있는 의례복식은 각 종교 집단의 종교적 의미를 전달하며 그들 종교 사상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여 표현하기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 이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대부분 종교 집단에서 착용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의례에서 착용되고 있는 각 종교 단체의 의례복식은 의복의 형태, 색상 등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의례복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들을 이해하는 것도 신홍 종교 집단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 집단 중에서 외래에서 도입되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종교들도 그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들 종교는 대체로 19세기에서 20세기초에 아노미 상태에 있었던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어 현재는 한국 개창 신홍종교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중 계통 불명을 제외한 韓國에서 開創된 7개 宗團 즉, 甌山系, 檀君系, 水雲系, 圓佛敎, 奉南系, 覺世道系, 巫敎系 등의 45개 敎 <표 1>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현재 각 종단의 의례복식들은 전통복식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초기의 의례복식의 형태가 현재까지 변화 없이 계승되고 있다면 우리의 전통복식의 형태가 각 종단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 현재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는지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한국에서 일어난 개창 신홍종교들의 의례복식을 중심으로 남·녀 着裝類型, 衣服·冠帽의 形態에 대하여 알아보고 의례복식에 나타난 구조적인 특징에 각 종단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헌 연구와 현행 의례복식의 형태를 실태 조사하여 의례복식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며 신홍종교 思想이 의례복식에 어떻게 反映되어 표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韓國 新興宗教의 概觀

한국종교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신도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종교 집단을 의미하며 외래 종교와 국산종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을 비롯하여 이들에게서 분파된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다. 선교 역사로 볼 때 전자를 기성종교, 후자를 신홍종교라 부른다.

신홍종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유사종교(사이버 종교) 같은 의미로 신종교, 민족종교 등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학자에 따라 종교 단체에 따라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유사종교라는 명칭은 유사성과 사이버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종교인 것 같으나 종교가 아닌 집단 즉 가급적 사교 집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柳炳德, 金洪喆, 梁銀容, 1992)

민족종교는 근세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하여 새로운 종단으로 창도된 종교 중에서 특히 동학과 단군교를 민족종교라 하고 있으며(이강오, 1975) 신홍종교는 문자 그대로 새로 일어난 종교를 말한다. 특히 1860년 수운의 동학이래 우리 나라에서 새로 생겨난 종교에 대한 통칭으로 쓰인다.

신종교라는 명칭은 신홍종교 중에서 종교의 가르침 속에 전통성·역사성·윤리성·대중성이 들어 있는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대종교를 신홍종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유병덕, 1985; 임상임, 1996 등).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들 명칭의 개념을 근세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를 구분짓지 않고 신홍종교라 부르려고 한다.

표 1. 研究 대상 宗團 및 敎團의 數

宗團名	敎團名	敎團數
甌山系	보천교, 선도, 순천도, 삼덕교, 동도법종금강도, 태극도, 증산교 본부, 보화교, 미륵불교, 증산법종교, 모악교, 무을교, 청도대향원, 대순진리회, 증산도장	15
檀君系	대종교, 단군성전전전전, 광명도, 한얼교, 단단학회, 대종교영암사교당,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삼성궁, 삼신도, 단군교종무정, 삼진도, 선덕학회	12
水雲系	천도교, 동학교본부, 수운교, 동학회중앙수도원, 동학성도교	5
圓佛敎	원불교	1
奉南系	한국불교태고종, 삼천교, 삼법수도교화원, 천지대안도, 성덕도, 자야도	6
覺世道系	각세도본원, 각세도천지원리교	2
巫敎系	도술암, 인불도, 무량교, 천우교	4
합 계		45

한국의 신흥종교들은 교주의 역사, 교리의 맥락, 교단의 체제 등을 기초로 편의상 기성종교에서 분파된 신흥종교(유교계, 불교계, 기독교계), 한국에서 개창된 신흥종교(단군계, 수운계, 원불교, 봉납계, 각세도계, 무속계, 계통불명), 외래 신흥종교(일본계, 중국계, 기타 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 1992)

신흥종교의 발생 양상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근세 이후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그 발생 동기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 제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나, 특히 한국의 개창 신흥종교는 구한말의 혼란, 이조의 패망, 일제의 침략, 8·15해방, 한국전쟁 등 국가적 대변혁의 악순환 상태에서 정치·사회·종교적 불안, 가치관의 부재 등 복합적 사회병리를 요인으로 창립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배경 하에서 출현한 한국 개창 신흥종교는 대부분 창교자의 깨달음에 의하여 창교되었고 그 깨달음의 차원에서 그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적·사회적으로 비슷한 요인이 작용한 관계때문인지 여러 면에서 서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金洪喆, 1989; 문상희, 1983)

첫째로 宗教合一性이다. 신흥종교는 기존의 儒·佛·道敎는 물론 서양의 기독교, 민속신앙까지 융섭, 활용하는 종교 회통적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천도교는 유교를 중심으로 儒·佛·仙 三敎를 合一하고 있으며, 증산교는 龜山을 주체로 하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회통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後天開闢性이다. 이 사상은 기성종교에서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데 반하여 현세적 지상낙원을 지향하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先天의 특징은 어둡고 미개하고 혼란한 세상으로 後天의 특징은 밝은 세계·문명세계·질서나 평등의 세계·합리의 세계로 규정짓고 있다.

셋째, 民族主體性이다. 신흥종교 창립자들은 강한 민족주체 의식을 가지고 한국이 장차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후천의 낙원세계가 건설되리라는 것이다.

넷째, 人間中心性이다. 선천의 종교들이 神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면 이들 신흥종교 속에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思想과 敎義가 되어있다. 이들 신흥종교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억누르고 말살시키는 사회였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인권을 되살리고 존중하는 인권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社會改革性이다. 대다수의 신흥종교 창시자들은 강한 사회개혁 의지를 가지고 당시 사회가 크게 병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사회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水雲의 사회개혁의 하나인 廣濟倉生運動은 훗날 東學革命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고 3·1독립운동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밖에 말세를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그 교단의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교세주 신앙, 기존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자기 종교에서 통일되고 있다고 하는 통일사상, 전통문화를 계승 내지는 발전시키는 가르침을 펴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성, 上下·尊卑·남녀 등을 가리지 않는 平等性 등도 신흥종교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 III.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의 構造的인 特徵

본 논문은 한국에서 개창된 신흥종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의례적인 행사에서 착용하고 있는 의례복식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특징은 의복의 형태, 색상, 소재이나 본 고에서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착장 유형과 형태만을 보고 의례복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儀禮服飾의 着裝類型

의례복식의 구성에서 기본복(I)이 한복의 바지·저고리 일 때 남자는 기본복+포+관모<사진 1>와 기본복+포<사진 2>의 순이며, 여자는 기본복<사진 3>, 기본복+포+관모<사진 4>의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고, 기본복(II)이 양장, 양복일 때 남자와 여자 모두 기본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

<표 2>에서 전체적인 착용 빈도를 볼 때 기본복이 한복의 바지, 저고리일 때 남자는 기본복·포·관모의 구성이 증산계, 단군계, 수운계 각각 4건씩 보이며, 기본복·포의 구성은 증산계는 3건 봉납계는 2건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 1. 동학회중앙수도원 男子 儀禮服食(2000. 10. 4)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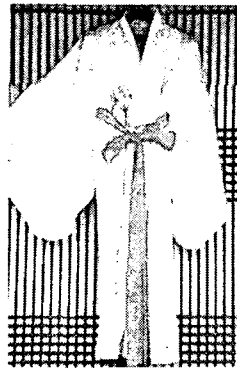


사진 2. 보천교 男子 儀禮服食 (2000. 9. 22)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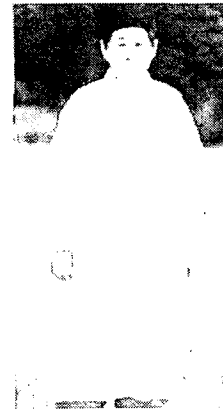


사진 4. 증산법종교 女子 儀禮服食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66



사진 3. 보화교 여자 儀禮服食 (2000. 11. 6)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65

<표 3>에서 여자는 기본복이 13건 중에서 증산계에서 4건, 단군계, 수운계, 봉남계에서 각각 3건씩 나타나고 있다. 기본복이 양장, 양복일 때 남자는 증산계는 3건, 단군계는 2건, 봉남계는 1건이 보이며, 여자는 기본복이 양장, 양복일 때 10건 중에서 봉남계, 무교계는 각각 3건, 단군계, 증산계는 각각 2건씩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고유s의 전통복식의 특징이 많이 보이며 동시에 현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의례복으로 양복을 착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장·양복 차림은 신흥종교 사상 속에 내포된 生活化, 時代化를 의례복에 반영하여 현대적인 흐름에 따라 衣制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단에 따라서 그들의 敎理·思想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착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증산계 중

표 2. 韓國 開創 新興宗教 男子 儀禮服飾 着裝類型

한복유형 區分	남 자										여 자						
	저고리 +바지	저고리 +바지 +관모	저고리+바지+포				저고리 +바지+포 +관모		저고리+치마		저고리 +치마 +관모	저고리 +치마+포		저고리 +치마 +포 +관모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마고자 +조끼	케이프형	배자형	조끼	가사형	케이프형	가사형	배자형 케이프형		당의	조끼		가사형		
敎團名																	
甌山系(15)	1		3				4	1		4	1	1	2			3	
檀君系(12)		1	1	1	1		4		1	3		1	1	1		2	
水雲系(5)					1		4		1	3						1	
圓佛敎(1)																	
奉南系(6)			2							3							
覺世道系(2)						1											
巫敎系(4)																	
소계	1	1	6	1	1	1	12	1	1	13	1	1	2	3	1	1	6

표 3. 韓國 開創 新興宗教 女子 儀禮服飾 着裝類型

양장유형 區分	남 자						여 자					
	양복	양복+관모		양복+포		양복+포 +관모	양장	양장+관모		양장+포		양장+포 +관모
		기타	케이프 형	기타	가사 형			기타	케이프 형	가사형		
											기타	
教團名												
龜山系(15)	2		1	2		1	2			2		
檀君系(12)	3				1	1	2				1	1
水雲系(5)				1						1		
圓佛敎(1)	3				1		3					
奉南系(6)												
覺世道系(2)			1			1			1			1
巫敎系(4)	3						3					
소 계	11	0	2	3	2	3	10	0	1	3	1	2

단의 미륵불교의 의례복장은 '正服'을 입고 '袍衣'를 두른 후 仁和冠을 쓰는데, 正服은 道敎를 袍衣는 佛敎를, 仁和冠은 儒敎를 상징하여 전체적인 의례복식 구성을 통해 宗教合一 思想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의례복식의 구성에 있어서 전통 한복 차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을 의례복식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儀禮服飾의 形態

韓國 開創 新興宗教인 7개 宗團 45개 教團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교단에서의 의례복식은 우리 나라 전통복식의 형태를 그들의 宗教思想의 표현이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키고 있어 세부적인 형태에서 기존의 전통복식과 다른 유형이 많다. 그러므로 전통복식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 신흥종교 복식이 우리의 것을 영향받아 변형시켜 왔다는 점에서 가능한 그 特徵인 면을 중심으로 우리 복식의 용어로 정의하였다.

### 1) 衣服

유교를 숭상하고 예의와 격식을 중히 여기었던 조선시대에 착용한 포는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지만 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무의 유무, 트임의 위치 및 트임의 유무, 소매 형태 등에 따라 착용하는 대상과 명칭을 달리 하고 있다.(김영자,1992) 신흥종교에서 表衣로 착용하고 있는 포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

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袍는 상하가 하나로 된 겉옷 즉 표의(김영숙,1988)라고 하며 表衣는 겉옷(김영숙,1988)을 일컫고 있는 말로 여기에서는 표의를 그 세부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가장 밖에 착용한 상·하가 하나로 된 겉옷을 모두 지칭하고자 한다.

즉, 7개 종단 표의 유형은 -형 ... 포로 지칭하고자 한다. -형은 전체 포의 형태를 말하며 ...포는 깃의 형태의 포를 지칭 하고자 하며 그 의 특징은 설명하고자 한다.

<표 4>에서 한국 개창 신흥종교 7개 종단의 교단에서 착용되고 있는 남자 表衣의 형태는 表衣 45건 중에서 11건으로 窄袖周衣型直領袍<사진 5>를 많이 입고 있으며 7건으로 廣袖周衣型直領袍<사진 2>를 착용하며 그 외 다양하게 착용하고 있다.



사진 5. 태극도 男子 儀禮服食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65

특히 케이프 형태<사진 6>는 표의와 같이 상하가 하나로 된 겉옷은 아니나 표의 위에 착용되고 있는 걸치거나 두르는 형을 지칭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증산계 미

특불교의 袍衣<사진 7>, 한얼교 법의<사진 6>, 원불교 絡子<사진 8>, 한국불교태고종(청강사)의 袈裟<사진 9> 등이 있다.

여자 表衣의 형태는 21건 중에서 3건으로 大幣衣型直領袍<사진 10>를 많이 입고 있으며 2건으로 廣袖周衣型直領袍<사진 4>를 착용하며 그 외 남자 표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조상을 숭배하는 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남녀 平等思想과 인본주의 적인 사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8. 원불교 法格  
任相任,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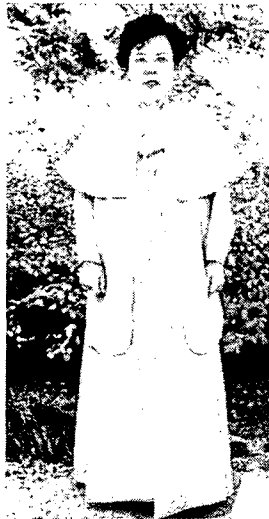


사진 6. 한얼교 女子 儀禮服食 (2000. 10. 26)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관한 연구”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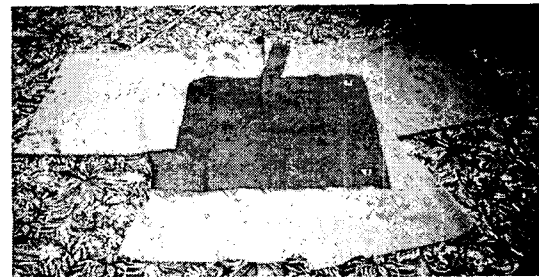


사진 9. 한국불교태고종 儀禮服食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관한 연구” p.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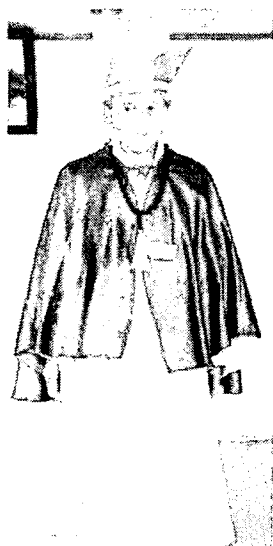


사진 7. 미륵불교 男子 儀禮服食 (2000. 6)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관한 연구” p.65



사진 10. 모악교 男子 法衣 (2000. 8. 7.)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관한 연구”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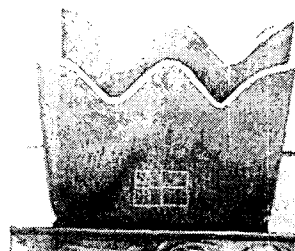


사진 11. 모악교 男子 冠帽 (2000. 11. 6.)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관한 연구” p.67



表衣에서 廣袖와 窄袖의 袍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廣袖袍는 남성, 존귀를 상징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교단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廣袖周衣型直領袍를 착용한 것은 남·녀 平等思想의 반영이며 人間中心思想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교단의 表衣가 우리의 袍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 교단이 한국에서 개창된 관계로 의례복 제정시 디자인 발상의 기본을 우리 옷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 2) 冠帽

각 교단에서 관모는 남자는 程子冠型<사진 11>, 弁型<사진 12>이 많으며, 여자는 弁型<사진 13>, 蓮花冠型<사진 14>, 程子冠型<사진 15> 순으로 그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표 5>

程子冠은 남자의 경우 관모 총 빈도 23건 중에서 7건(김현경,2001)이 착용되고 있다. 그 형태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山字形을 2, 3단으로 중첩한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각 교단의 思想的인 특징의 영향으로 山字의 중첩 정도, 크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자는 관모 총 빈도 11건 중에서 2건만(김현경,2001)이 착용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정자관과 비슷한 형이 여자 관모로 제정되어 착용되고 있다. 즉, 程子冠은 조선시대 사대부 유생들의 관모로서 이를 착용한 자는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신흥종교 교단에서도 관모를 통해 儒敎的意味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권위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남녀 평등 사상이 반영되어 여자의 착용 모습에서 관모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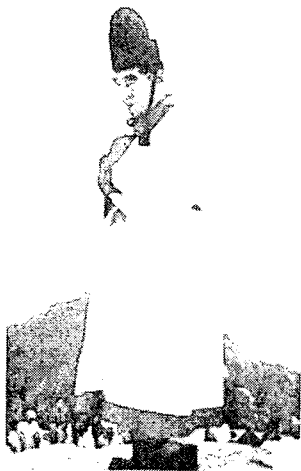


사진 12. 대종교 田儀, 秦由, 願禱의 儀禮服食(제복)  
(대종교제공 2000.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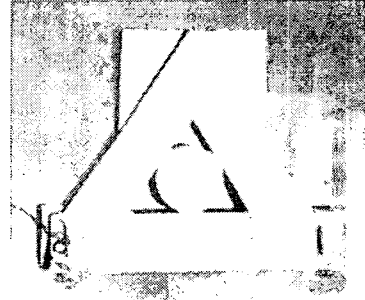


사진 13. 단단학회 男女 帽子 (2000. 10. 27)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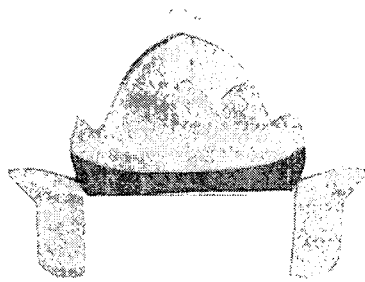


사진 14. 무을교 女子 蓮冠 (2000. 7. 7)  
金炫息,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연구” p.68



사진 15. 동도법종금강도 男·女 儀禮服飾

정자관 다음으로 많이 착용된 弁型은 남자는 5건, 여자는 3건이 착용되고 있다. 이는 상대 우리 나라 고유의 관모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단군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그 세부적인 형은 다소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각 교단의 다양한 사상 중에서 民族 主體性을 강조한 경우 형태적인 특징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丑 5. 韓國 開創 新興宗教 冠帽의 形態

宗團名	冠 帽																				計				
	男 子										女 子														
	坎頭型	巾型	立型	網巾型	弁型	幘頭型	蓮花冠型	儒巾型	程子冠型	花冠型	소계	坎頭型	巾型	立型	網巾型	弁型	幘頭型	蓮花冠型	儒巾型	程子冠型		花冠型	소계		
甌山系			1	2		1			5		9							1		2	1	4	13		
檀君系	1	1			4			1			7	1	1				2						4	11	
水雲系							2	1	2		5							1					1	6	
圓佛教											0													0	0
奉南系											0													0	0
覺世道系		1			1						2		1				1						2	4	
巫敎系											0						0							0	0
소계	1	2	1	2	5	1	2	2	7	0	23	1	2	0	0	3	0	2	0	2	1	11	34		

蓮花冠의 경우 佛敎的인 意味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마치 연꽃의 모양이나 연잎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모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명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 사상을 의복과 함께 관모를 통해서 象徵的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3. 의례복식에 반영된 사상

한국 개창 신흥종교에서는 다양한 사상들이 반영되어 특색 있는 의례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신흥종교들이 발생하였던 시대적·사회적인 상황이 유사하므로 그 출발에 있어 비슷한 요인이 작용하여 여러 면에서 서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종교적인 특성에서 보면 宗敎合·性, 後天開闢性, 民族主體性, 人間中心性, 社會改革性 등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특성에 맞추어 7개 종단 45개의 교단의 의례복식을 관찰한 결과 의례복식에서도 공통적으로 時代思潮的인 性向, 民族的인 性格, 敎意的인 性格, 祖上崇拜思想이 표현되고 있다.

첫째, 時代思潮的인 性向이다. 한국 개창 신흥종교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혼란하였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생성을 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착용되었던 한복을 기본복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19세기 관복의 포(광수)와 소매가 좁은 편복 포(두루마기)가 혼용이 되어 착용한 것으로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교단에서 한복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의복을 의례복식으로 제정하여 착용하고 있다.

둘째, 民族的인 性格이다. 의례복식의 着裝類型에서 보면 크게 한복 유형과 양복 유형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바깥에 착용하고 있는 表衣의 경우 우리의 전통성을 고수하고자 袍의 형태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관모 중에서 弁型의 경우 단군계 교단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民族主體性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고시대에 착용되었던 관의 형태를 형상화하였다. 이 또한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

셋째, 敎意的인 性格이다. 신흥종교 특징 중 하나인 儒·佛·仙 三敎合·思想의 영향으로 儒·佛·仙 三敎의 思想이 각 교단에 따라 그들이 중시하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성향이 의복이나 관모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그 예로 증산계 계통의 교단 중에서 '袍衣'의 경우 그 字句가 의미하는 精誠, 어머니, 따, 불교를 상징하며 부처님의 근원 자리를 의미하고 있다.(임상임, 1991) 그 외 신흥종교 교단에서도 관모를 통해 儒敎的 意味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권위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여자 또한 의복과 관모를 함께 갖추고 의례에 참여하고 있어 男·女 平等思想과 人本主義 思想도 내포하고 있다. 관모 중에서 연꽃을 형상화 한 연화관의 경우 佛敎的인 意味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儒·佛·仙 三敎合·思想 중에서 각 교단의 사상적 교리에서 그들이 중시하는 면을 더욱 강조하여 의례복식에서 표현하고 있다.

넷째, 祖上崇拜思想이다. 조상숭배 사상은 동양사회의 오랜 전통이며 특히 7개 종단 45개 교단에서 '치성', '儀式', '儀禮'의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IV. 結 論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부터 출현하여 변화하는 근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한국의 신흥 종교 중 계통 불명을 제외와 韓國에서 開創된 7개 宗團 즉, 甌山系, 檀君系, 水雲系, 圓佛敎, 奉南系, 覺世道系, 巫敎系 등의 45개 敎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신흥종교들에 대한 문헌 연구와 현행 의례복식의 형태를 실태 조사하여 의례복식의 構造的인 特徵을 把握하며 新興宗教思想이 의례복식에 어떻게 反映되어 表現되고 있는지를 考察하고자 하였다.

첫째, 의례복식의 構造的인 特徵 중에서 着裝類型, 形態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신흥종교의 중요한 思想的인 特徵이 의례복식에 反映되어 表現되고 있다.

의례복식의 着裝類型은 남자는 한복의 저고리와 바지 위에 포와 관모를 착용한 유형과 양복을 착용한 유형이 많으며, 여자는 한복 저고리와 치마와 양장을 착용한 유형이 많다. 이는 우리 전통 복식을 의례복식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점차 儀禮服飾 계정이 弱화되거나 簡素化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의례복식의 形態는 현재의 두루마기인 窄袖周衣型直領袍가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 여자는 大襟衣型直領袍를 많이 착용하고 있다. 이 외 다양한 포의 형태가 남·녀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포의 형태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남·녀 平等思想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개창 신흥종교의 의례복식에서는 공통적으로 時代思潮的인 性向, 民族的인 性格, 敎意的인 性格, 祖上崇拜思想이 表現되고 있다.

즉, 의례복식은 儀禮, 儀式, 치성 등으로 불리우는 각 종교 행사에서 착용됨으로써 행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다른 교단들과 구분하기도 하며 행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의식에 몰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韓國 開創 新興宗教의 의례복식의 構造的인 特徵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敎理나 思想이 着裝類型, 形態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과 기성종교의 복식을 繼承하고 차용함으로써 宗教的 思想을 象徵化하여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 한복(韓服), 착수주의 직령포(窄袖周衣直領袍), 광주직령포(廣袖直領袍)

#### 참 고 문 헌

- 金英淑(1988),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唐, 510, 512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66  
 金洪喆(1989), 韓國 新宗教 思想, 集文堂, 16~24  
 金炫京(2001),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182  
 문상희(1983),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 한국종교사학회, 325  
 柳炳德, 金洪喆, 梁銀容(1985), 韓·中·日 三國 新宗教 實態의 比較研究,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12,14  
 유병덕(1985), 한국 민족종교 사상론, 시인사, 428  
 이강오(1975), "한국 신흥종교의 개관", 최일운박사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158  
 任相任(1991),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5.74

(2003. 12. 25 접수; 2004. 02. 12 채택)